

어린영화

현행 '심의'론 폭력·선정 못 걸러

어린 시절의 문화접촉이 개인의 자아나 민족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영상시대라고 말하는 요즘 어린이 문화에 있어서 역시 영상문화의 영향력이 무척이나 크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각 방송사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에는 인색하고 외국의 수입만화와 외화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더구나 상업방송인 SBS의 개국 이후 최근 2,3년 사이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외국만화, 외화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입영상이 판치는 중요한 이유는 제작비용이 우리만화를 만드는 비용에 비해 50분의 1

에서 1백분의 1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성인 프로그램에서의 시청률 경쟁이 어린이 프로그램에까지 확대되어 방송사들은 어린이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폭력적 만화영화나 외화들을 무조건 공급하고 있다.

특히 수입영상물들은 사전심의

다. 방송사에서 수입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어린이 영상물들의 질적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은 방송위원회, 영화심의위원회의 94년 상반기 만화심의 보고서에서 나타난대로 방송불가와 조건부 방

YMCA 방송비평

각 방송사 질 낮은 프로 앞다퉈 수입 시민자구노력으로 영상문화 개선해야

과정을 거쳐 방송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성이 강한 것들이다. 즉 폭력의 강도가 강한 장면들은 사전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지만 일상적이고 만연된 폭력이나 폭력적 메시지는 현행 심의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영사제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월등히 늘어났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KBS 2 TV '쥘리키 월드컵'은 축구경기를 소재로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축구는 경기가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이나 마찬가지로

여서 매 시험마다 황금이나 수정으로 된 축구공으로 경기를 하면서 공을 주고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심한 부상을 당하는 장면들, 또한 반칙을 수시로 하는 장면들로 메워지고 있다. MBC '코난'은 마법사와 코난의 무용담이 기동줄거리여서 거의 매회 싸움

장면으로 이어진다. 매회 징그러움과 혐오감을 주는 뱀인간과의 싸움, 현란한 색채와 번쩍이는 섬광, 그리고 노출이 심한 풍만한 육체의 여성의 전투 모습 등 성인대상 만화영화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버젓이 어린이 시간대에

어린이 만화영화로 방영되고 있다. 또한 얼마전에 끝난 SBS의 '쌍둥이 줄루줄리'는 암살과 음모,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혀 일을 한다거나 아랍왕자의 후궁을 구하러 온 상인에게 팔려간다는 등 비윤리적인 내용들이 전체 이야기 줄거리에서 빈번히 나오고 있다. 사전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이루어지지만 이야기 전체의 줄거리 전개상 필연적인 부분들은 장면삭제가 어렵다. 따라서 전체적인 줄거리 전개와 주제 등 작품 전체의 질적평가 원칙을 만들지 않고는 현행 심의 체계로는 어린이 영상물에서의 폭력성, 선정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이번 방송위원회 정책연구실의 만화영화, 외화의 폭력성 지수에 대한 보고서에서 가장 폭력지수가 높았던 MBC '핑크팬더'의 경우는 대화보다는 코믹한 구성방식의 빠른 장면전환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집을 짓는 목수의 뒤를 따라 다니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뜯어 고치는

장면에서, 2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못통 속의 못과 망치 등이 차례로 머리에 박힌다든지, 자동톱이 사람을 따라다니며 닳치는 대로 두쪽으로 잘라 버린다든지 하는 장면들이 빠르고 경쾌한 음악으로 그려지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부가 비디오 복제를 불허하자 비디오 제작사인 계몽아트콤쪽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무적과워레인저' 경우 텔레비전 방영 당시부터 폭력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논란이 돼 KBS에서는 이미 수입한 40편을 방영하고는 나머지 50편에 대해서는 더이상 수입을 양기로 했다. 그러

나 사전심의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피가 튀는 장면이 없다해서 40편에 대해 일체의 수정없이 그대로 심의를 통과시켰고 비디오 제작사는 이것을 빌미로 이번에 비디오로 복제를 불허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 YMCA 등 9개 시민단체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허구적 명분을 가지고 끝없이 과몰과 로봇의 싸움을 반복하는 것은 폭력을 즐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한자가 행하는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정

당화하는 폭력적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 오히려 더욱 심각성을 지적했다.

방송사와 방송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노력 못지 않게 부모들의 시청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만화영화니까 마음놓고 보여줘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보며, 부적당한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는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의식만이 우리 어린이들의 영상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다.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모임